

# “화합하는 군민·미래로 비상하는 진도”

올해 새해설계

김희수진도군수

## 농수산업 핵심 경제 기반...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확대 민속문화 수도 조성 등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군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화합하는 군민, 미래로 비상하는 진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민과 함께 희망찬 진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를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며, 6대 과제를 통해 균형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제

시했다.

첫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진도를 만든다. 농수산업은 진도의 핵심 경제 기반으로 삼고, 양배추, 시금치 등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지초 재배단지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을 착공해 기후변화 등 미래 수산업에 대비하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 김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군은 고령화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120만원과 안질환 수술비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도 포함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셋째, 출산·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진도군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출생기본수당 지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판매도 직항 여객선 건조 사업과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

이다.

넷째,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제1의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군은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반으로, 민속문화 수도로서 문화·예술·관광이 융합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리랑마을 관광지 캠핑장, 블루로드 테마여행길 등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진도와 제주 에일링을 연결하는 1만급 신규 카페리를 2026년 취항 목표로 차질없는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다섯째, 365일 꽃피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진도를 만든다. 회전교차로 신설과 배수로 정비를 통해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여섯째,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군민 섬김 행정을 실천한다.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 신조도대교 건설, 서방항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진도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김희수 군수는 “지방소멸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진도군민의 끈기와 저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분야별 최고의 성과를 발판 삼아 ‘화합하는 군민, 미래로 비상하는 진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더 높이 뛰겠다”고 강조했다. /진도=박세권기자

## 나주시-이전 공공기관, 민생경제 회복 ‘총력’

### 15개 기관 지역경제 활성화·민생안정 대책 논의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15개 공공기관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학연금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상현 나주시부시장을 비롯해 한진,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

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사학연금 등 15개 기관의 간부 임원들이 참여해 각자의 민생경제 대책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전KDN은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하고 임직원에게 포상으로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지역 상권 방문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 상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구내식당 휴무제와 나주시사랑상품권 배부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저녁 급식 지원을 추진하는 등 민생 대책을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기관이 민생경제 회복에 공감하며 14일 혁신도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공동개회를 결의했으며 나주시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및 홍보,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상현 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충환기자



나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소비 확산대책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 신안군, 염전 시설 현대화...“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 총 215억 투입...시설 자동화·위생화·근로자 숙소 등 조성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신안군이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위생 관리에 나선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 21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염전 바닥 개선 사업 37억원과 자동채염기 및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 10억원을 포함한다.

또한 천일염의 장기 저장시설 2억원

과 포장재 지원 4억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천일염 유통단지 조성에 95억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1억원, 홍보·마케팅에 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70억원 규모로 건립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해 천일염의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천일염의 판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자동 소포장기 도입

5억원과 수출 마케팅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군로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1대1 전담제를 실시하고, 100억원을 들여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를 건립한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교육 등 통해 근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신안천일염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소금을 염전가장자리로 모으는 장비인 '탐승형 전동대파기(왼쪽)'와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겨 담는 장비인 '양용 자동채염기'. (신안군 제공)

## 완도군, 노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본격화’

### 기존 하수 처리 용량 50% ↑ ...2027년 준공 목표

완도군이 노화권역의 환경 보호와 하수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263억원을 투입, 노화읍 이포리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1월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 처리 용량(480m³/일)이 50%(720m³/일)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신 하수 처리 기술을 도입해 하수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는 것은 물론 향후 20년 이상 하수 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 처리 구역 확대에 삼마미라·충도마을의 각 가구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도로 연결해 역원을 투입, 노화읍 이포리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1월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노후된 하수 관로(9.0km)를 정비해 우천 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방류수 악취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예정 부지. (완도군 제공)

해당 사업은 노화읍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공공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산업이 주요 사업인 완도의 청정 해역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 “땅끝의 참맛”...해남맛집 6개소 지정

### 도화지 식당 등 6곳...미식관광 활성화 기대

해남군이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을 ‘해남맛집’으로 선정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해남맛집 선정 음식점은 6개소로, 도화지(해남읍), 대동명품한우(북평면), 돌고래식당(삼산면), 궁전화관(황산면), 대선정가든(송지면), 땅끝정인숙갈국수(현산면) 등이다.

도화지 식당은 해남읍 읍내길에 위치해 있으며, 해남식 보리굴비와 계절

한정식을 선보이는 음식점이다. 대동명품한우는 해남 특산물인 황칠을 이용한 갈비탕과 숙성 돼지고기를 메뉴로 하고 있으며, 돌고래식당은 해남 대표 먹거리인 닭코스 요리와 생갈비를 숯불에 구워 내는 요리법으로 유명하다. 황산면 소재지에 위치한 궁전화관에서는 아나고 주물럭과 장어탕 등을 선보이며, 송지면의 대선정 가든에서는 하모 샤브샤브와 닭코스 요리를 취

급하고 있다. 현산면 구산리에 위치한 정인숙갈국수는 해남산 팔로 만든 팔 갈국수와 해물 갈국수를 판매하고 있어 미항사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다.

해남맛집은 공고를 통해 모집 및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해남군 대표음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해남군은 해남의 맛집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인 ‘미미(味美)원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친절·홍보 및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해남의 미식관광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박필용기자

## 박효상 목포시의원 “공정·투명인사로 신뢰 회복해야”

### 목포시 인사 문제 지적...학연·지연·측근 챙기기 관행 근절 요구

박효상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당2동·연동·삼학동·사진)이 13일 5분 발언을 통해 목포시 인사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목포시의 인사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안정성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인물의 과도한 승진과 배

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조직의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으며 ‘학연·지연과 승진 내정설’ 같은 소문이 공직 사회 내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 기준 무시, 승진 심의과정의 모호성, 특정 직렬과 부서 편중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인사의 기준과 절차 공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

개 ▲측근 챙기기 관행 근절 등 투명한 인사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공직자가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 일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정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공정과 능력 중심에 둔 인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 믿는다는 말처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영광군, 시가지 제설 작업 ‘구슬땀’

### 출퇴근 및 등·하굣길 통행 불편 해소

영광군은 “최근 24cm 폭설로 인한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시가지 후속 제설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2시20분 대설주의보 발효 후 4일간 200여명의 공무원이 대

설로 인한 주·야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10일 관내 시가지 곳곳에 쌓인 눈을 제거했다.

갑작스런 혹한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주민과 함께 상가 주변, 인도, 승강장

앞 등 주민들의 출퇴근 및 등·하굣길 통행 불편 해소와 빙판길로 인한 낙상 사고 예방을 목표로 눈을 치웠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속 제설 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